

## 언어장벽에 가로막힌 인터넷 포교

한국불교의 세계화, 인터넷 세상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본지가 조사한 결과, 교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불교 관련 사이트 1700여개 중 영문 사이트는 20여개에 불과해 인터넷 포교의 적진호를 알리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1998년 2만6000여개였던 도메인은 2007년 100만여개로 증가했다. 불교 사이트에 관한 기관의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한 통계에 따르면 2001년 700여개, 2005년 1500여개였으며 현재는 1700여개로 추산되고 있다. 이 가운데 영문사이트는 22개이며 기타 외국어 사이트는 5개 미만인 것으로 파악된다. 세계화를 지향한다는 한국불교는 결국 '우물 안 개구리'로 언어의 장벽에 막혀 있다.

불교 영문 사이트의 운영 실태는 '운영'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과거 제공하던 영문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인터넷 카페 형식을 빌려 제한적 커뮤니티로 영문 사이트를 대신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또 '국제' '세계' 등의 이름을 내걸고 있는 단체들도 영문사이트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운영'을 한다는 곳도 업데이트

## 불교관련 사이트 중 2%만 영문서비스 제공 외국어사이트 콘텐츠·전문인력 부족도 문제

주기가 1개월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업데이트가 늦은 것은 갱신할 자료가 없는 것도 이유다.

실제 영문정보를 제공하는 대부분의 불교 사이트의 정보 수준은 도서의 목차나 종단 단체 등의 안내를 소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해외 포교에 활용되기엔 역부족이다.

조계종 영문 사이트(www.koreanbuddhism.net)의 경우 척박한 외국어 인터넷 환경에서 교계의 귀감이 된다. 조계종 영문 사이트는 2002년 개설돼 2006년에는 영문 간화선 사이트로 리뉴얼 됐다. 또 2004년에는 전통사찰 안내를 위해 코리아템플 사이트를 추가로 개설했다. 현재 템플스테이와 코리아템플, 달마넷 등 3개 사이트를 통합 과정이 진행 중으로 영문 사이트의 개편도 기대된다.

영문 간화선 사이트는 교계에서 성공적인 외국어 사이트로 인정받고 있다. 여기에는 조계종 교육원이

발행한 수행지침서인 <간화선>의 요약 번역본이 소개돼 있다. 원호·선정 스님 등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선사들의 행장과 법문, 서예와 서화, 조계종의 역사 등도 담겨 있다. 방문자 참여를 위해 수행문답도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사용자가 올린 글에 대한 상호간 응답 기간이 한달여에 이르는 등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지 못한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한 네티즌은 "사이트를 개설하고 유지하는 것은 외주 등으로 해결하고 있어도 사용자들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운용의 묘가 부족한 것 같다. 3개 사이트가 통합되면 이런 문제점이 해소될까"고 말했다.

10여개의 불교 언론사 중 영문 뉴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이 한 곳도 없다는 점도 문제다. 조선·동아 등 중앙 일간지는 물론이고 연합뉴스 등 방송사는 수시로 업데이트 되는

영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열악한 교계 언론 환경에서 이들을 따라하기는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지적이 대세다. 하지만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위해 불교 언론의 영문 서비스 필요성은 다들 공감한다.

영문 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포교의 중요성은 인식하나 콘텐츠 확보도 어렵고 사이트를 관리·운영할 만한 전문인력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뚜렷하지 않다.

사람의 문제, 인재불사의 중요성이 새삼 확인되는 순간이다. 불교영어를 다국어로 표현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다. '道場'을 '도랑'으로 읽듯이 'work'도 '수행'으로 해석할 수 있고 영역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이들에게는 인터넷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는 디지털 마인드도 필요하다.

예산과 인력 수준급제 해결을 위한

관리 대행체제의 필요성도 부각된다. 이런 점에서 개별 사찰에서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은 영문 템플스테이 정보를 종단 차원에서 전국적인 정보를 모아 제공하고 있는 템플스테이 사이트는 모범이 되고 있다.

사이트는 관리·운영이 중요하다. 일단 운영을 시작하면 콘텐츠의 생산·가공·재배치 등을 통해 항상 변화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는 방문자의 재방문으로 이어진다. 조계종 발표자료에 따르면 2007년 영문 간화선 사이트의 방문자가 작년 대비 280% 증가했다고 한다. 간화선과 한국불교에 관심을 갖고 사이트를 찾는 이들을 두 번, 세 번 사이트로 이끌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콘텐츠 업그레이드와 커뮤니티 활성화가 필요하다.

한국불교가 세계라는 무대에서 무어자재하기에는 언어에서부터 걸림이 많다.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김승철 교수(중앙대)는 "한국불교가 인터넷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속환경을 배려한 문서 위주의 사이트 구성과 해외 불자와 연계한 콘텐츠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조동성 기자

## 종산·성수·혜정·선진·무진장 스님 조계종 원로의원 선출



조계종 원로의원에 종산·성수·혜정·선진·무진장 스님이 선출됐다. 또한 원로의원을 10년 임기의 단임제로 하고, 80세 이상 스님은 명예 원로의원으로 예우하는 원로의원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관련기사 2면> 조계종 원로회의는 11월 28일 제30차 원로회의를 개최하고 12월 10일 임기가 만료되는 원로의원스님 4명을 포함한 5명의 원로의원을 선출했다. 원로회의는 조계종 중앙종회에서 추천한 11명의 스님 중 만장일치로 종산·성수·혜정·선진·무진장 스님을 선출했다. 또한 원로의장에 종산 스님을 재추대하고, 차석부장에 밀은 스님을 선출했다. 단, 종산 스님은 신임 임기 5년이 아닌 원로의원으로서의 잔여 임기 1년 4개월만 수행하기로 결의했다.

여수령 기자

### 社告

### 현대불교신문 '신행수기' 공모

현대불교신문 신행수기 공모가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수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차곡차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세요.

- 주제: 수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지 4장)
- 접수처: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한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마감: 2007년 12월 17일
- 당선작 발표: 2008년 1월 1일자 본지 및 부디뉴스
- 문의전화: (02)2004-8282
- 이메일 접수: jygang@buddhapia.com
- 시상 부문 -대상(유마상)/우수상(본사 사장상)/특별상

### 현대불교! 기사평가하고 푸짐한사은품받으세요

현대불교는 10명으로 구성된 독자운영위원회를 전체독자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매주 지면에 실린 주요 기사들을 부디뉴스(buddhanews.com)에서 '독자위원회' 코너를 통해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내용을 적극 반영해 보다 좋은 신문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참가자는 매월 추첨하여 푸짐한 사은품을 보내 드립니다. ◆참여 방법 -부디뉴스(buddhanews.com) 좌측 독자위원회 코너 -> 기사평가 항목설문 ->주소 남기기



"군불교 더 큰 걸음으로 달려갑니다" 조계종 군종교구(주지 일면)는 11월 30일 제39주년 군종의 날 기념법회를 서울 세검정 하림각에서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자승 스님과 조계종 포교원장 혜흥 스님,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을 비롯해 육해공군 현역 군법사와 군 사찰 신도 등 사부대중 1500여 명이 참석했다. 군종교구는 이날 지은 스님(육군본부 군종실)에게 총무원장상을 수여한 것을 비롯해 군 포교 활성화에 공적이 큰 군법사와 신도 37명을 표창했다. 글/사진=박재환 기자

### 원순 스님 '열강' 동영상으로 원각경 특강 CD 제작 100부 한정 보급

현대불교신문이 창간 13주년을 맞아 불자 여러분의 공부를 돕고자 '원순 스님의 <원각경> 특강 CD'를 제작 100부 한정 보급합니다. 해인사 백련암에서 성철 스님 문하로 출가해 제방 선원에서 수선(修禪)하고 제경전(諸經典)을 연찬한 원순 스님이 조계종 동화사 기본 선원에서 10일간 강의 한 내용을 그대로 생생한 동영상 CD에 담았습니다. 문수 보현 보안 미륵 보살 등 12보살이 열여 주는 진리의 세계, 그 환한 세상으로 가는 길, 동영상 CD로 만나는 원순 스님의 '열강'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제목: 원순 스님의 (원각경) 특강
- ◆분량: 총 10강 동영상 CD 20매
- ◆강의: 2007년 9월 16~27일(10일)
- ◆장소: 조계종 동화사 기본선원
- ◆제작: 현대불교영상사업단
- ◆가격: 19만원(교재 포함)
- ◆교재: 함허특등 주해 원순 스님 풀이 <한글원각경>(법공양 권, 2만5000원)
- ◆구입문의: 02-2004-8200, 2004-8279.
- ◆입금계좌: 국민은행 038-25-0008-365(예금주 에이치비엔씨)

###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들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 ◆취급업무◆ 민사·형사·가사·영정

법률사무소 서안  
전 화 031)387-5400 팩 스 031)387-5409  
유대문 010-7504-4521 (강원도 변호사)  
017-535-0685 (강기현 변호사)  
010-4488-3740 (김정현 변호사)

고품질 장수 발효식품 100% 천연

- ◆산야초 오곡조청 1.2Kg - 48,000원  
꽃이 오르지 않고 함 율의 약성을 섭취하는
- ◆산사 참 울 조청 1.2Kg - 현 시세
- ◆산사 약도라지 조청 1.2Kg - 현 시세

불자들에게 위한 정성 산사조청원  
주문처 054-372-3166  
입금계좌: 농협 727077-0252-05676(예금주:연순회)

## 아름다운 등

전선(케이블) -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저등 승강 장치(등포 조정 작업)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LED인등·LED전구

부산 해운대 법문사 법당 남양주 영도암 인등 군산상주사 위패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립니다

찬덕연등 경기도 이천시 교산동 132-1 / 전화: 031) 792-6288, 794-4055 / 팩스: 031) 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연등·주불등·전선사공·영구위패·LED인등·LED전구